

문제. 나)와 다)의 제시문을 토대로 가)의 A의사의 행위에 대한 옹호와 비판의 의견을 각각 논술하시오. (700~800자)

가)

최근 서울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게재한 A모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 글이 직업윤리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담당의였던 A 교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서술하고, 엄중한 처벌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지난 18일 게재했다. A 교수는 "처음엔 사건에 대해 함구할 생각이었지만,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 재발방지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당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접한 국민은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에 대해 생생하게 알게 됐으며, 해당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A 교수의 글은 지금까지 '좋아요'를 누른 국민만 21만3000명 이상이며, 4만6000회 이상 공유됐다. 여론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당시 상황을 공유한 A 교수의 글로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 같은 사건은 알려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의 글이 기폭제가 되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게 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인 수가 100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A 교수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공분할 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A 교수 행동은 명백한 직업윤리 위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나 그 유가족에게 어떠한 동의도 얻지 않았다는 점, 그의 글에서 공익의 목적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의 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의사는 과도한 영웅심, 지나친 나르시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그러한 성찰과 실천이 의사의 업을 숭고히 지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목적론적 윤리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음을 전제하고서 인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묻는다. 행복과 쾌락 등 다양한 인간 삶의 목적이 존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목적을 성취해 내는 삶이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도덕적인 것이 그 자체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곧 도덕적임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살면서 좋다고 여기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 된다. 설사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윤리 규범을 어기게 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예컨대 최대 다수의 최

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요구된다. 이와 같은 목적론적 윤리는 이성의 보편타당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결과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다)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 - 377)는 보통 "의학의 아버지" 혹은 의성(醫聖)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의사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의사가 될 때 선서를 한다. 다음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이다.

이제 직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 나의 직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